

NYPI YOUTH REPORT

청소년리포트

vol.10 _ 10 / 2010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테마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역량강화

NYPI

미래세대리포트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강화의 방향 | 양계민

조사통계리포트 청소년 가출 실태 조사 | 백혜정

정책제언리포트 장애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 박영균

해외동향리포트 호주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 박영균

청소년리포트 MTROK | 김아로(대전 관저고등학교)

칼럼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양계민

발간물 소개 NYPI발간물 / 자료실 신착 도서

NYPI NEWS

YOUTH

REPORT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NYPi YOUTH REPORT

vol.10 2010. 10

발행일 | 2010.10.3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2263-1992)

홈페이지 | www.nypi.re.kr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 04 |  미래세대 리포트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강화의 방향 _ 양계민
- 16 |  조사통계 리포트 청소년기출실태조사 _ 백혜정
- 27 |  정책제언 리포트 장애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_ 박영균
- 32 |  해외동향 리포트 호주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_ 박영균
- 38 |  청소년 리포터 MTROK _ 김아로(대전 관저고등학교)
- 44 |  칼럼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_ 양계민
- 47 |  발간물 소개
- 56 |  NYPI NEWS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강화의 방향 ¹⁾

양 계 민(부연구위원)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민족, 다인종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기의 다문화 가정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7월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는 58,00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주 노동자 자녀 재학생수는 1,402명,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이주노동자는 8,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및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청소년 전반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형편이고, 사회적으로 지원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써 이들이 지닌 ‘부족함’에 초점을 두어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주말체험학습이나 학용품, 행사참여 등 물적 지원과 멘토링 등 일반 청소년들로부터 구별하고 차별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한국주류집단이 아님을 새로이 인식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1) 본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 고유과제인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연구 I>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문제는 이들이 주류집단 청소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나아가 잠재적 문제를 소지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사회전반에 전달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청소년을 결핍된 존재 또는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한다는 문제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신의 자아상(self-image)에도 영향을 주어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주변화 됨으로써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이 실제로 다수집단 아동 · 청소년들에 비해 역량이 실제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 아동 · 청소년의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아동 · 청소년의 역량

(1) 한국어 능력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한국어의 문제이다. 한국어는 국내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어를 제대로 숙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 숙달은 학업을 수행하거나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특히 말하기는 다른 아이들과 큰 차이 없이 잘하는 데 반하여, 받아쓰기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오연경, 2008),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개인의 능력문제라기 보다는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이들을 봐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공부를 봐주지 못하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 및 역량의 문제는 한국의 일반가정 중 저소득층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주자의 언어 문제는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민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언어능력이나 읽기에서의 성취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ncan, Magnusson, 2005; Fuligni, 1997; Hernandez & Chamey, 1998). 언어능력의 문제는 언어관련 영역에서의 성취 뿐 아니라 학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그 결과 학교를 중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Gutman, Sameroog, & Eccles, 2002; Orfield, Losen, Wald, & Swanson, 2004). 그러나 일반적인 라틴계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달리 아시아계 미국인 아동들의 경우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서(Mau & Lynn, 1999.; Rong & Grant, 1992), 이주 자체가 적응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주가정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정환경, 교육에 대한 태도,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어 습득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출신국가, 한국의 체류기간, 지역사회 내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는데, 비교적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기타 다른 국가 출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보다 수업시간의 이해력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한국의 체류기간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한국어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한국어를 접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각종 외국인 센터 및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정병호 외, 2007).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각 상황에 맞는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가정환경요인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한국의 일반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이 주로 아내의 몫이 되어,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학원문제까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도 언어능력 때문에 언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한다(모선희 외, 2008). 어머니가 언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취학 전까지는 심각한 문제까지는 드러나지 않으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양상이 달라진다. 자녀의 학습이해력 저하, 또는 학교과제 수행시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주, 2007). 한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자녀의 학습능력저하,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조영달, 2006).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기선 외(2007)의 연구를 보면, 경기도내 결혼이민자들이 학령기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언어소통상의 어려움보다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고, 숙제도와주기를 다음으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에 비해 중학생을 둔 경우는 가장 어려운 점을 사교육비 부담으로 든 것은 동일하였으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두 번째 어려운 점으로 호소하였다. 이는 자녀가 좀 더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한국어 실력차이가 벌어지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이주여성의 경우 사교육 중심의 한국 교육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경제적 여건상 어렵기도 하여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2006). 이와 관련하여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의 학업지도를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또는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생업에 바빠서” 라고 응답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것

으로 보아 경제적 어려움도 자녀의 교육지원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녀교육의 문제는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어머니의 출신국이나 교육수준 등 배경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자녀는 조선족 출신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오성배, 2005), 이는 외모로 인한 차별경험도 많고 출신국과 한국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어서 부모 중 한명이 일본이나 중국출신인 경우에 일상대화 뿐 아니라 학교수업이나 교과서 이해의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희정, 이희섭, 심진숙(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의 위험요인을 점수화 한 결과 필리핀, 일본, 중국 순으로 자녀들이 적응상의 위험요인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할 만한 대상이 한국여성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역할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유능감에 대한 믿음이자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녀 양육에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Johnston & Mash,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부모가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부모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Donovan, Leavitt, & Walsh, 1997; Luster & Kain, 1987; Teit & Gelfand, 1991).

특히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각은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양육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Teti & Gelfand, 1991). 실제로 Gil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숙재, 1997).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중 부모의 한국어능력, 양육효능감,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 등 부모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3) 학교환경요인

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적응해야 할 장소로 가정환경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환경 중 청소년의 역량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학습과 교우관계 및 교사와

의 관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학습

국내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가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경숙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숙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다.²⁾

이는 주로 언어능력의 부족 때문으로 오성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과목 중 국어과목이 특히 취약하고, 그 중 일기쓰기와 독후감을 매우 어려워하였으며, 문장이해력이 떨어지고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과목에 대한 어려움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또한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우관계 형성이나 발표 등의 수업참여 정도에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결혼이주가정 자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이어서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 67명 중 30%가 한국에서 정규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는 ‘학교측이 거부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도 35.6%에 달했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이와 관련하여 김정원 등(2005)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학교별 입학 및 졸업방식에 차이가 있고, 학교입학에 대한 정보공유체제가 부재하며, 한국어 능력 중심의 학년배정과 학교부적응의 문제, 부모의 이직에 따른 잦은 거주이전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장애,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하며 그 결과 학교이탈, 언어로 인한 학업성적 저조, 정체성문제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현영(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가정 초등학생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보통 이상이며, 학습관련 영역에서의 적응도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일선(2006)의 연구에서도 경북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가정 이동의 학습성취도가 일반 아동들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된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학업성취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어떤 경우는 국사와 국어를 가장 재미있는 과목으로 지적하는 등 매우 적응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정병호 외, 2007). 따라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기능적으로 적응하는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도 마찬가지였다.

② 교우관계

교우관계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고 반 아이들의 놀림에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는다(오연경, 2008).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한 참여관찰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주자녀들의 학교생활은 ‘조용히 묻혀있기’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겉으로는 교우관계가 원만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한국어 능력 위주로 편성되는 학년배정이었다.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격계는 1살, 많게는 4살이 적은 학급동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본인의 나이에 맞지 않는 정신적, 신체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서로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학업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배은주, 2007). 결혼이주 가정 자녀의 경우도 초등학교의 20.2%, 중학교의 11.2%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 경험, 고립 및 소외감 등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낮고, 자아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외, 2007). 이러한 결과는 과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의 문제가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문인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현재 한국의 학교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일반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희정, 이희섭, 심진숙(2009)은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비해 당사자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런 점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우관계 역시 일률적으로 모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이들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③ 교사

학교교사는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가 교실 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환경 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소외와 문화적 이질감 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 중 하나이다(유희정 외, 2009). 교사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

하며(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지지와 인식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혜정, 2007; 안은미, 2006).

그러나 교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정보도 없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어떤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즉,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다(조혜영 외, 2007).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지식과 경험의 어려움과 함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을 가능성에 조심스러워 하기도 한다(오연경, 2008).

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청소년 지도방법 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극적 태도를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사와의 교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회피행동은 교사로 하여금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오연경, 2008). 또한 교사 자신도 결혼이민자 학부모와 접촉을 하는 데에서 일반아동 부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학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정일선, 2006).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과 관련하여 학교교사의 영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체성과 가치관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삼중의 언어를 접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언어와 생활방식 등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를 완전히 한국어이로 키울 것인지, 자신의 모국문화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공식적인 교육이나 언어정책과는 별도로, 자녀에게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체성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국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일단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뒤에는 자녀가 부모의 언어나 문화를 유지하고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조혜영 외,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이주민들의 경우 본국정체감과 이주국 정체감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hinney(1991)의 연구를 보면 미국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의 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민족적 정체감과 자이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폴란드계 미국인을 대상

으로 정체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Boski(1994)의 연구에서는 폴란드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국에 대한 정체감과 주류문화 정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국적을 지니고 있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와는 또 다른 경우이다.

국내 연구 중 신혜정(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문화 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자아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둘 다 즐길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송선진(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모의 차이와 한국어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론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며 이러한 정체성이 청소년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추후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이중언어

가정에서 엄마의 언어로 육아를 하는 것은 엄마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양질의 모국어는 자녀의 학습능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어릴 때 엄마의 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제 2언어, 제 3언어 습득이 쉬워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은, 2007). 그러나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모어보다는 한국어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희정 외(2009)의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만’ 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고(69.3%), ‘한국말이 대부분이고 어머니 나라 말은 약간(22.7%)’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아, 절대 다수가 주로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었고, 어머니 나라 말을 반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8%에 불과하였다.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정도는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만을 비교해본 결과 일본 어머니들이 모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이 필리핀,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신 어머니들 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신혜정(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어와 어머니나라 언어를 둘 다 잘 하는 아동일수록 한국문화와 어머니나라의 두 문화를 더 많이 즐기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미, 2007).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청소년이 성장한 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국어와 현지어 중 어떤 것을 더 먼저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스웨덴어의 경우 어릴 때 모국어의 완벽한 습득이 스웨덴어 이해와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1968년 한세고드(Hansegard)의 연구에

근거하여 1976년부터 모국어 교육을 전 이주민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골자는 이주민 아동이 먼저 접하는 언어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의 모국어인데 이를 체계화시키지 못하면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지고 스웨덴 사회에의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모국어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스웨덴어의 습득과 학교교육과 사회적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조기모국어교육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주민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일찍부터 모국어를 배워서 언어두뇌적 인지가 떨어지고 혼돈만을 가중시켜 스웨덴어의 언어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Skolverket 2002c). 그 예로 외국인 부모를 둔 스웨덴 태생 아동의 경우 읽기능력이 내국인 자녀보다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kolverket 2001a, 2001b). 현재 스웨덴에서는 찬반논의가 잠시 일기는 했으나 모국어교육이 사회적응교육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최연혁, 2009).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머니 나라의 말을 먼저 배운 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먼저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연구된 바 없고, 이중 언어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개발 문제 역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들이 뒤처진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연구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각 연구자들이 어디



사진출처 <뉴스토마토 2009-07-28>

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것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시각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결핍된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일은 실제와 달리 평가절하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이 주류집단 아동 · 청소년에 비해 부족한 집단이라고 고정관념화 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양계민, 조혜영, 2009)을 보면,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경우와 직접 경험한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양계민, 조혜영(2009)의 연구에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312명을 대상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수준을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다문화 역량, 관계형성요인, 심리적 역량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대상 교사들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없는 경우와 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도 경험이 없는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에 대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니는 고정관념이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에 비해 더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일반에 고착화 될 때,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 스스로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면화 할 수 있고, 그러한 내면화는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실제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소외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희, 김성이, 신호진 (2007). 농촌여성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2), 53-78.
- 김정원, 이혜영, 배은주, 허창수, 구리나, 전종희(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이동복지학, 22, 127-159.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보고서 2008-02.
-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 · 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제 40 권 3호, 1-28.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이주 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 배은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7(4), 49-85.
-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연경(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정, 이희섭, 심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연구. 한림성심대학 산학협력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 정기선, 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 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보고서.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병호, 박재홍, 김효진, 정연우, 장용미, 안종수, 김태우 (2007). 경기도 내 다문화교육현장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정일선(2006). 국제결혼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5.
- 정현영(2005).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oski, P. (1994). Psychological acculturation via identity dynamics: Consequence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A. M. Bouvy, F. J. R. van de Vijver, P. Boski and P. Schmitz (Eds), Journeys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97-215).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Donovan, W., Leavitt, L. A., & Walsh, R. O. (1997). Cognitive set and coping strategy mothers' sensitivity to infant cries: A signal detection approach. Child Development, 68, 760-772.
- Duncan, G. J., & Magnusson, K. (2005). Can family socioeconomic resources account for racial and ethnic test score gaps?

The Future of Children, 15, 33-54.

- Fuligni, J. (1997).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The role of family background, attitude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8, 351-363.
- Gil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utman, L. M., Sameroog, A. J. & Eccles, J. S. (2002).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frican American students during clearly adolescence: An examination of multiple risk, promotive,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367-400.
- Hernandez, D. J., & Chamey, E. (1998).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t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3-437.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u, W. C., & Lynn, R. (1999).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091-1096.
- Ofield, G., Losen, D., Wald, J., & Swanson, C. (2004). Losing our future: How minority youth are being left behind by the graduation rate crisis. Cambridge, MA: The Civil Rights Project at harvard University.
- Phinney, J. S. (1991).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 review and integra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3, 193-208.
- Rong, X. L., & Grant, L. (1992). Ethnicity, generation, and school attainment of Asians, Hispanics, non-Hispanic Whit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3(4), 625-636.
- Skolverket. (2001a). Kursplaner för grundskolan 2000. Västerås: Fritzes.
- Skolverket. (2001b). PISA 2000. Svenska femtonåringars läsförmåga och kummande I matematik och naturvetenskap I ett in ternationellt perspektv. (NO. 209). Stockholm.
- Skolverket. (2002). Kvalitetsredovisning i landets kommuner samt Skolverkets åtgärder för att stödja detta arbete (English translation: Quality reporting in the country's municipalities and the National Agency's measures to support this work). Retrieved February 20, 2006, from <http://www.skolverket.se/publikationer?id=978>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청소년 가출 실태조사¹⁾

백혜정(부연구위원)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고유과제인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가출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4년 조사(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9.2%가 가출 충동을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고된 가출 청소년만도 13,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은 신분노출을 꺼리고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매년 약 7만 명 정도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김향초, 2009), 이 같은 규모의 추정치는 청소년의 가출이 극히 일부 청소년의 개인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갈등을 겪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한다. 그러나 가출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당면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형성·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가출로 인해 가출이 습관화된 청소년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본 조사 청소년들의 가출과 그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청소년 가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예방책 및 대응책이 가출의 원인 및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출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2. 조사 대상

조사대상 청소년은 총 10,253명이며,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 총 9,751명(전체 응답자의 약 95%)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다른 한 집단은 컴퓨터 거주하는 청소년 총 502명(전체 응답자의 약 5%)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4,985명(51.5%), 여학생 4,766명(48.9%)이 조사에 응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 2,788명(28.6%), 중학생 3,505명(35.9%), 고등학생 3,458명(35.5%)이 조사에 응했다. 한편 컴퓨터 청소년의 경우는 모두 684명이 설문지 응답했으나 이중 부실한 응답을 한 182명을 제외하고 2) 총 5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이들의 성별은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남자 258명(51.4%), 여자 242명(48.2%)으로 나타났다.

2) 일반 청소년의 설문지에 비해 컴퓨터 청소년의 설문지에서 부실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컴퓨터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성실성이나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력 등이 낮고 그러한 경향이 설문지 응답 행동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II. 주요 조사 결과

1. 일반 청소년 및 쉼터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

(1) 가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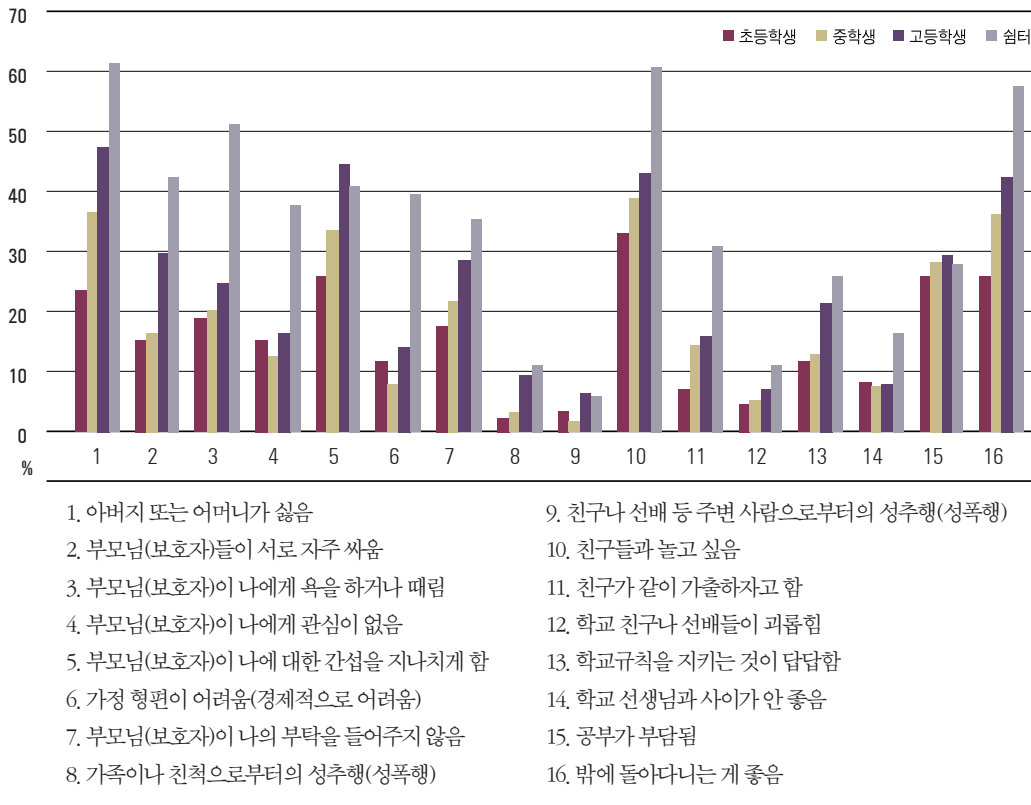
실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10,253명 중 1,193명(11.6%)이 1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반 학생의 경우는 7.9%,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83.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9.4%)보다는 남자(13.8%)의 경우가, 그리고 학교급(초·중·고 각각 3.0%, 8.1%, 11.8%)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1] 가출 경험률

(2) 가출 이유

가출 이유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서’, ‘공부가 부담돼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등의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부담돼서”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이 싫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라는 응답 외에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등의 항목에서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쉼터 청소년에게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일반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 사이의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쉼터 청소년들이 직면한 열악한 환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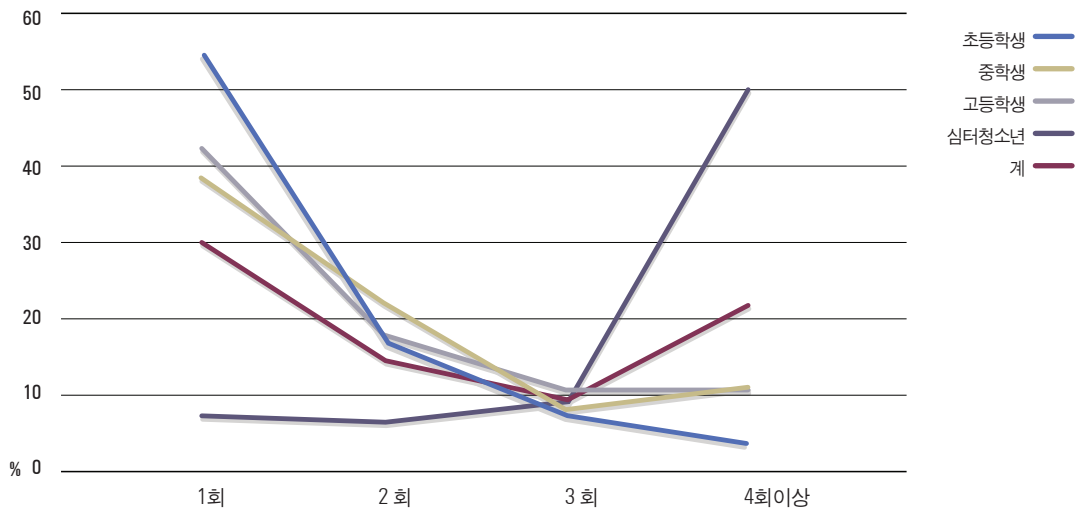
[그림 2] 가출의 이유(중복응답)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부담돼서"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이 싫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라는 응답 외에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등의 항목에서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에게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일반 청소년과 청소년 사이의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열악한 환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총 가출 횟수

가출 횟수는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약 33.6%(401명)가 1회에 그친 반면 2회는 18%(215명), 3회는 12.6%(150명), 4회 이상은 28.3%(338명)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는 가출 경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약 46%)이 1회성 가출인데 비해 청소년들은 가출 경험이 1회인 경우는 가출 경험자의 10.5%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들의 가출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등학생의 청소년자치활동은 월간단위활동임. 자원봉사활동과 단체수련활동의 전체 참여횟수는 중·고등학생의 평균참여횟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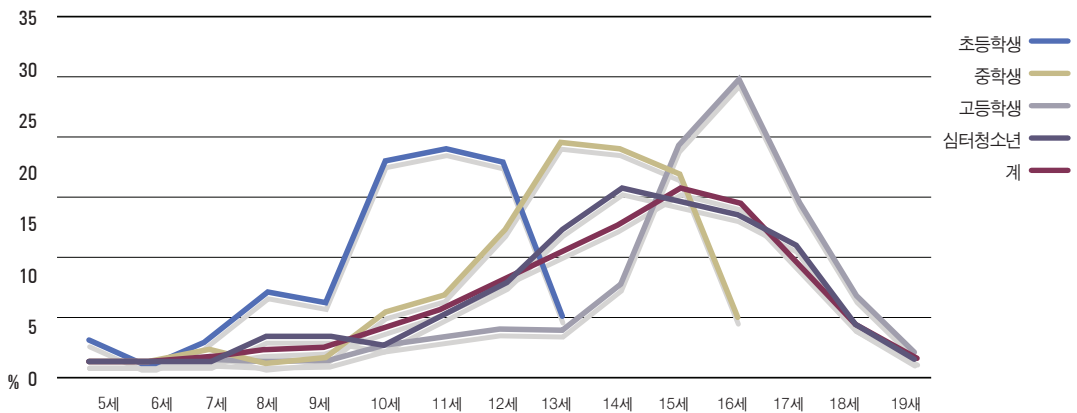


[그림 3] 총 가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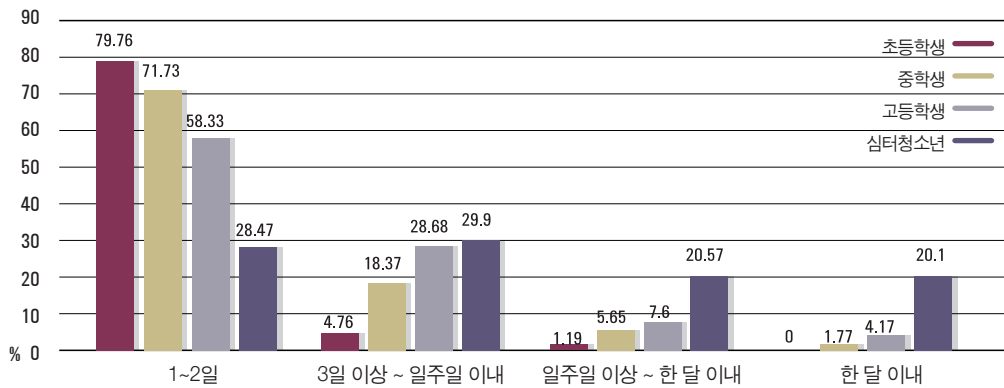
(4) 첫 가출 시기 및 기간

첫 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3~16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세 이전에 가출을 경험하는 경우도 8.6%(응답자 1,129명 중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도 예방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첫 가출 기간을 살펴보면(그림 5), 나이가 어릴수록 가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약 80%가, 중학생의 경우는 약 72%가 1~2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1~2일 이내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약 58%에 불과하였다. 반면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첫 가출에서 1~2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약 28%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났다. 또한 첫 가출이 한 달 이상 길어진 경우도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20%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 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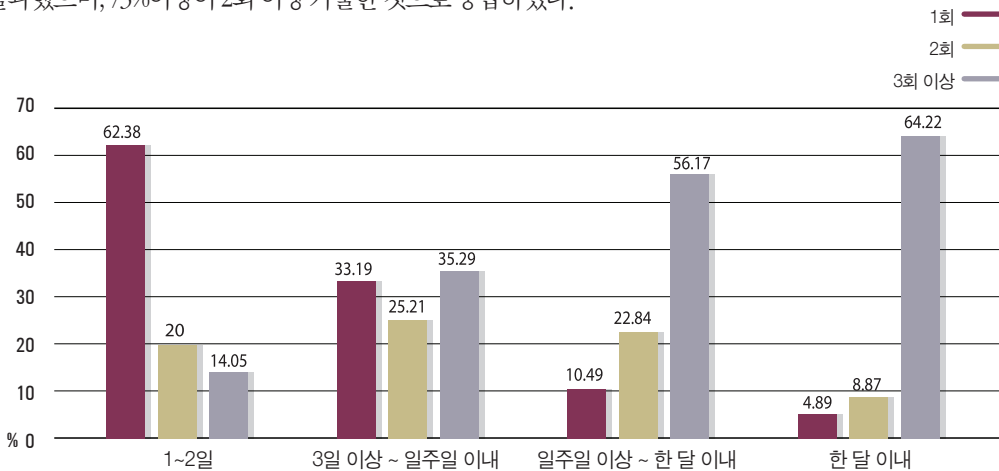
[그림 4] 첫 가출 시기



[그림 5] 첫 가출 시기

(5) 가출 횟수 및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청소년들의 가출 횟수와 기간을 종합하여 보면(그림 6), 가출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출기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출 기간이 1~2일에 그친 경우 중 가출횟수가 1회라고 응답한 이들은 62.38%로 나타난 반면, 2회 이상이 라고 답한 경우는 34.05%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가출횟수가 1회로 그친 경우는 4.89%에 불과했으며, 73% 이상이 2회 이상 가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6] 가출횟수 및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2. 가출 청소년들의 유형별 실태

가출 청소년들의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가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무경험자, 일회성 가출자, 반복가출자, 장기가출자, 만성가출자로 분류하였다. 무경험자는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하였고,

일회성가출자는 가출 횟수가 1회이며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비교적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복가출자는 가출 횟수는 2회 이상이지만, 최장 가출기간이 일주일 이내인 경우로 단기 가출을 반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장기가출자는 가출 횟수는 1회이지만 최장가출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가출 횟수는 적지만 가출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출 횟수도 2회 이상이고 최장 가출 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가출 횟수도 다수이고 기간도 긴 경우는 만성가출자로 분류하였다.

(1) 가출 청소년들과 가정

가출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 부모님의 학대 및 방임의 정도에 대해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지지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가족지지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214.28, <.01$). 사후검사에서 Scheff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가족지지 총점 평균(24.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일회성 및 반복가출자였으며, 장기 및 만성가출자의 가족지지 총점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다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내 지지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가출유형과 가족지지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24.94	5.04
일회성	341	22.46	5.89
반복	317	22.11	7.33
장기	33	18.18	5.54
만성	456	18.28	7.40
계	10,207	24.45	5.50

	SS	df	MS	F	Scheff
집단간	23929.55	4	5982.39	214.28**	장기·만성 <
집단내	284829.00	10202	27.92		반복·일회성 <
계	308758.60	10206			무경험

** $p < .0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학대 총점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학대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233.84, <.01$). Scheff검증 결과에서도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과 일회성가출 집단의 학대 총점 평균(각각 7.02와 8.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반복 및 장기가출자였으며, 만성가출자의 학대 총점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가족 내 학대 경험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방임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방임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129.13, <.01$). Scheff검증 결과,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총점 평균은 7.7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회성가출집단의 방임 총점 평균(8.48)이 그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반복 및 장기가출자간에, 그리고 장기와 만성가출자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성가출자의 방임 경험 총점평균은 반복가출자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가족 내 방임 경험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가족 지지 및 학대 정도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가출유형과 학대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02	3.02
일회성	341	8.16	3.33
반복	317	9.45	5.13
장기	33	9.91	4.15
만성	456	11.23	4.80
계	10,207	7.33	3.37

	SS	df	MS	F	Scheff
집단간	23929.55	4	5982.39	214.28**	만성 > 장기 · 반복 > 일회성 · 무경험
집단내	284829.00	10202	27.92		
계	308758.60	10206			

** p < .01

<표 3> 가출유형과 방임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70	3.68
일회성	341	8.48	3.33
반복	317	9.57	5.73
장기	33	10.91	4.03
만성	456	11.55	5.66
계	10,207	7.97	3.96

	SS	df	MS	F	Scheff
집단간	7703.38	4	1925.85	129.13**	만성 > 반복 > 반복 > 무경험
집단내	152151.10	10202	14.91		
계	159854.50	10206			

** p < .01

(2) 가출 청소년들과 또래

청소년들 또래동조성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또래동조성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65.94, <.01$). 가출경험자들의 또래동조성향은 가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또래동조성과 가출 간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에 비해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의

<표 4> 가출유형과 또래동조성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17.76	4.95
일회성	341	19.98	4.83
반복	317	20.28	5.77
장기	33	20.64	5.46
만성	456	20.53	5.84
계	10,207	18.05	5.08

	SS	df	MS	F	Scheff
집단간	6636.58	4	1659.15	65.94**	무경험 <
집단내	256684.32	10202	25.16		일회성 · 반복 ·
계	3587114.00	10206			만성 · 장기

** $p < .01$

<표 5> 가출유형과 친한 친구의 일탈 정도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12.21	3.69
일회성	341	13.68	3.34
반복	317	15.04	7.37
장기	33	18.55	14.15
만성	456	18.42	6.36
계	10,207	12.65	4.30

	SS	df	MS	F	Scheff
집단간	20205.30	4	5051.33	305.28**	무경험 · 일회성
집단내	168806.33	10202	16.55		< 반복 <
계	1821892.00	10206			만성 · 장기

** $p < .01$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305.28, <.01$). Scheff검증 결과를 보면, 만성 및 장기 가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 정도는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나 일회성, 반복성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 경험의 정도보다 높았다. 또한 반복가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 정도는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나 일회성 가출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정도보다 높았다. 아쉽게도 이 결과로부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이전부터 일탈경험이 높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출 이후에 이들과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일탈경험이 많은 청소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들 역시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가출 청소년들과 심리건강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대한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자존감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048)=29.93, <.01$). Scheff검증 결과를 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은 가출경험이 있는 이들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출 여부 및 유형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가출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울·불안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우울·불안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10202)=38.55, <.01$). Scheff검증 결과를 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측정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가출유형과 자존감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8,919	29.11	4.82
일회성	336	28.03	5.08
반복	314	27.35	4.93
장기	33	26.18	4.43
만성	451	27.28	5.28
계	10,053	28.93	4.88

	SS	df	MS	F	Scheff
집단간	2822.13	4	705.53	29.93**	장기·만성
집단내	236849.73	10048	23.57		·반복·일회성
계	8652305.00	10053			< 무경험

** $p < .01$

〈표 7〉 가출유형과 우울·불안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01	6.90
일회성	341	9.27	8.64
반복	317	9.45	6.83
장기	33	12.15	7.12
만성	456	10.07	9.80
계	10,207	7.32	7.17

	SS	df	MS	F	Scheff
집단간	7805.38	4	1951.34	38.55**	장기·만성
집단내	516413.06	10202	50.62		·반복·일회성
계	1070706.00	10207			〉 무경험

** p < .01

III. 결론

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11.6%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47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1회 이상의 가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기간은 연령이 어릴수록 짧았고 가출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출기간도 증가하였다. 한편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횟수도 많았다.

가족의 지지 및 가정내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 가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동조성이 높고,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는 높은 반면 이외에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부터의 지원과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측정과 그에 따라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박영균(선임연구위원)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행동 문제, 성폭력 피해, 그리고 이들의 성문제에 대한 비장애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나 혹은 성교육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문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장애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 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피해경험은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리 예방해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피해경험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성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1. 성폭력 실태 및 추세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표현을 금기시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자신의 성적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황에 맞는 성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성 행동은 그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비장애인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정상적이며 적절한 행동일 수 있다. 즉 지적장애인의 성행동은 지적장애인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성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런 성 발달상에서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동안의 상담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담은 2006년 8,979건에서 2007년 9,892건으로, 2008년에는 11,44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월에서 6월 말까지 6,494건으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부, 2009). 그러나 신고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와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수치에 있어 생기는 차이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곧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고,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성폭력의 본질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피해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이를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영, 2009). 외국의 연구에서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iter et al., 2007).

또한 최근 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당시의 연령을 보면,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13세~18세까지가 전체 사례의 6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7~12세까지가 30.4%였으며, 6세 이하는 1.3%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18세까지가 가장 많지만, 그 이하에 해당되는 연령대도 30%대로 나타나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가 어린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학교유형을 보면, 통합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학교 차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들의 성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8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 중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적장애 이외에는 지체장애가 2.5%, 청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각각 1.3%였다. 여기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예방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

쳐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피해자가 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는 실제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장애유형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에 이어서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3급인 경우가 57.0%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급이 27.8%, 1급이 8.9% 등이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등급은 3급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1, 2급을 합한 비율도 30%대로 나타나 적지 않았다.

한편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성폭력 피해의 위험이 더 큰 것에 대해 Andrews와 Veronen은, 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 ② 장애인에 대해 무기력감을 조장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③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잡히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확신, ④ 사회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믿음 부족, 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육 부족, 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공미혜 외, 2007 재인용).

또 조용태(2003)는 장애인의 수동성, 지나친 신뢰, 의존성과 사회성,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욕구,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자아 존중감의 결여, 버려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애인을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즉 각각의 문헌들을 살펴볼 때 장애인이 성폭력에 취약한 다양한 이유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인권을 가진 존재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못해 지적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지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이러한 취약 요인에 비취볼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비장애인의 성폭력과 달리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 첫째는 성폭력이 여러 번, 장기간 지속된 후에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대부분 그것이 성폭력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장애인에게 물건이나 돈 등을 주어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폭력을 애정의 표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위협이나 협박으로 인해,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드러내지 못한 채 지내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현혜 외, 2008).



두 번째는 성폭력 중 성추행이나 성희롱보다 강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 성추행으로 37.3%이지만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는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3.5%로 가장 높다(여성부, 2009). 특히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부족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성폭력의 피해가 크며, 강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이현혜 등(2009)과 경원사회복지회(200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또래에 의한 성폭력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중 또래에 의한 성폭력은 2006년 121건에서 2007년 130건, 2008년 166건, 2009년 상반기 207건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여성부, 2009),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6년 14%대에서 2009년 상반기 17%대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또래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적장애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 지적장애청소년은 성폭력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또래로부터 거부 혹은 소외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성폭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신현기, 정진옥, 2009). 반면 비장애인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생기는 성적 호기심이 크게 작용한다. 이들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한 부적절한 성에 대한 정보가 실제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비장애인 또래들이 가진 이러한 정보 확인을 위한 대상으로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발생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중 몇몇은 자신의 성적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 되며,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의 확산을 사회적으로 막기 위해, 그리고 지적장애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발생을 모두 예방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예방,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



3. 장애아동 ·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상처 또한 이들의 삶에 깊이 남게 된다. 더욱이 나이가 어린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일반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결국 정부가 즉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의정서(Child Protection Protocol)」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뉴질랜드 경찰당국과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아동·청소년·가족(Child, Youth and Family) 서비스 사이에 맺은 일정의 업무협조에 대한 합의다.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의정서 조인의 배경, 목적, 원칙, 범위, 그리고 책임, 절차, 갈등 해결,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의정서의 범위를 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 심각한 신체적 학대, 방임, 가정 폭력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가 있을 때 처리해 나가는 절차에 대한 규정에서는 우선 반응시간을 정하여 놓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즉각적 반응, 2일 내에 다루어야 하는 반응 등으로 세분화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한 가지 대책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개선이 요구된다. 즉 여성가족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인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 평가, 치료, 응급구조 등 가족기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법적 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원스톱지원센터에 직접 사법기능을 부과하기 어렵다면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과 즉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개선 혹은 제도개선은 전국의 10여 개 해바라기이동센터의 제도개선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된 서비스 지원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을 아주 무겁게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지를 애초에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 복지국가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참고문헌

- 공미혜, 김경화, 김현지, 주경미(2007). 장애여성의 삶과 복지. 신정.
- 경원사회복지회(200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지역연계망 구축 간담회 자료집. 경원사회복지회.
- 신현기, 정진욱(2009).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시그마프레스.
- 여성부(2009). 2009년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 이은영(2009).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현황과 관련변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혜, 김정인, 김정숙(2008).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연구. 여성부.
- 이현혜, 이현숙, 양돈규(2009). 아동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지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조용태(2003). 발달장애아동 성 학대의 이해. 도서출판 특수교육.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Reiter, S., Bryen, D.N., and I. Shachar(2007).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victims of Abus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1(4), 371-387



호주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박영균(선임연구위원)

1. 호주의 장애인 관련 법률 및 규정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규를 보완하는 정부 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관련 법규는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우선 호주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관한 주요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장애아동 지원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Commonwealth Disability Services Act)

장애인 리뷰(Handicapped Persons Review)에 이어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령(Commonwealth Disability Services Act)』을 통해 ‘새로운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국으로 배포되는 ‘장애인 리뷰’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확장되고 포괄적인 상담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전례 없는 시도였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참여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주류 서비스 접근의 질적 향상을 의미했다.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령』은 사용가능한 기금의 개편을 통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개혁 협의사항에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

1) '세계 청소년의 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ocial.un.org/youthyear>) 참조

왔다. 이 법령을 통한 개혁으로 인해 대형 수용시설의 규모가 축소되고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지역 중심의 고용이 요구되었다. 이 법령이 만들어낸 결과 중 하나로 이와 같은 장애인 프로그램의 발전을 통해 긍정적인 소비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연방 - 주정부 장애인 협정(Commonwealth - State Disability Agreement)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준주정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간의 지속적인 분열과 불일치로 인해 그 역할과 책임관계는 항상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1991년 1차 「연방-주정부 장애인 협정」의 실시와 함께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가족 지원, 휴양, 지역사회 왕래, 대체고용 및 수용시설 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맡는 한편 연방정부는 고용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기존과 같이 독립적인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있다. 1972년까지 장애아동은 공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립 비정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학교들을 공교육 시스템의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3) 차별금지법

1981년 「인권 위원회 법령(Human Rights Commission Act)」은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전국 인권 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인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과 「지적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등 여러 국제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권한을 확정했다. 이 조례와 1986년 대체된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법(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은 장애인 인권을 연방법으로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법들은 집행 가능한 어떤 권리나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 주정부 행정 또는 사적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방정부의 법령 및 시행에만 적용되는 수준이었다. 이어서 1991년에는 연방정부가 전국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 마련을 고려할 것을 합의하였다. 1992년 5월 26일 호주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례(DDA) 법안이 연방의회에 소개되면서 고용 분야의 기회와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마주치는 장벽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이 그 초점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4)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

최근인 2008년 7월 호주는 「UN 장애인 인권선언」을 비준한 세계 13번째 국가가 되었다. 회의 공식 참가 전년도에 호주 정부는 이제 선택적 조례에 동의함으로써 의무 불이행 시 항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가능한 모든 분야의 보상과 구제를 모두 사용한 개인과 단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에 클레임을 요청하

고 위원회는 클레임을 검토하여 관련정부에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감독하고 회의를 승인한 모든 정부는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택적 조례의 승인은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연합회의의 진행과정을 보장하고, 「전국 장애인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을 통해 그 실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5) 전국 장애인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

호주에서는 2007년 12월 개혁적인 수상 케빈 러드(Kevin Rudd)가 이끄는 새 연방정부가 출범했다. 전국 장애인 전략 회의는 쇼튼(Shorten) 장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전략회의는 장애를 지닌 호주 국민이 부딪혀야 하는 장벽에 대해 알리고 사회적 수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의 지역사회,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고용주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교류와 상담을 통해 발전했다. 「전국 장애인 전략회의」의 발전은 28명으로 구성된 전국 장애인 및 보호자 협의회(National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rer Council)의 설립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전략회의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정부에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 관련 분야 노조 및 대표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서비스

1) 조기 중재 프로그램

호주의 각 주와 준주(territory)에는 발달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찰을 위한 많은 수의 전문 아동보건센터, 보건 진료소, 그리고 주요 아동병원, 전문 소아과, 전문의원이 있다. 진료에 의해 장애 진단을 받으면 해당 아동은 조기 중재프로그램 전문의에게 의뢰된다.

조기 중재프로그램이란 0~5세(출생에서 학교입학 시기)의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보건□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서비스의 종류와 특성은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서비스는 아동과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방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많은 서비스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일부는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시각 및 청각 장애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조기 중재프로그램에는 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적응 지원, 공식 및 비공식 가족 지원, 그리고 학교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위한 전문지도, 치료 및 기타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를 위한 정보와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① 가족 중심 운영

조기 중재프로그램 종사자는 아동의 삶에 있어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가족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재 팀은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을 설립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 작성에 이용한다. 이 계획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에이전시가 참여한다. 중재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아동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센터, 유치원, 가족, 탁아소 및 일부 보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가족 IFSP 활성화를 통해 조기 중재프로그램과 주요 아동 서비스 단체가 협력하여 아동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에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조기 중재전문가의 상담과 방문도 포함된다. 아울러 일부 아동은 자신들이 최대한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학 준비

현재까지 진학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주된 기준은 연령이다. 특정 연령 이전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그저 뛰노는 존재’ 정도로 여겨진다. 보다 성숙한 관점에서 본다면 호주의 모든 아동은 경험에 상관없이 그리고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5세가 되면(일부 주에서는 생후 4년 7개월) 비로소 학습할 준비가 되어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의 진학 연령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취학 연령이 5세이다. 독일은 6세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보통 7세에 학교에 입학한다(Routley & de Lemos, 1993). 국가 간의 격차는 이동시기와 취학 준비상태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2) 교육

지난 100여 년간 호주의 장애아동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최초의 학교는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1860년대에 세워졌고, 이 후 80년 간 11곳에 같은 종류의 학교가 호주 전역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까지는 지적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학교가 없었다. 같은 시기에 다수의 일반학교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생겨났으며, 1939년까지는 지적장애아동 22,000명 중 11%만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부터는 중증 신체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다수의 ‘병원 학교’ 가 설립되었는데, 이 후 20년 간 20곳에 세워졌다.

1970년대까지 1,800여 개의 특수학교가 호주 전역에 세워졌고 그러한 추세는 이 후에도 계속되었다. 자선단체나 협회들도 대다수의 특수학교를 사립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들어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에서 더 활발한 역할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까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은 아동의 수가 25,000명 선까지 증가했는데 이 학교들 중 대다수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였다.

3) 통합을 추구하는 트렌드

1964년 「호주 장애인 재활 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ACROD)」는 장애아동을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했다. 1965년 정규 고등학교 내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호주 최초의 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를 만들었다. 남부 호주에서 1971년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공교육 체제 안에 다수의 특수학교 설립과 통합을 장려했다. 이어서 1976년 학교 위원회(Schools Commission)의 권고에 의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남 호주 특수교육 장관(Minister for Special Education in South Australia)의 임명으로 이어졌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도 제공되었다.

1980년까지 호주의 모든 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아동 교육이 장려되었다. 1950년대에 이미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규정 등 교육적 통합의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수학교가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 많은 장애아동이 특별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2003년 거의 115,000명에 달하는 중증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 대신 일반학교에 다녔고, 그 수는 1981년의 약 26,700명에서 획기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자가 치료, 이동 및 의사소통 등 기초적인 일상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453,000명에서 120만 명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NSW 주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

4) 스포츠와 레저

스포츠와 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친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전국적 규모의 수많은 단체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몇 개 주, 그리고 준주에는 「스포츠와 여가활동 부서(Departments of Sport and Recreation)」가 있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관광 및 예술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의 기

회가 다양성, 자유, 선택에 가치를 두는 호주 사회를 지원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여가활동, 관광, 스포츠 및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필요성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사람, 장소, 그리고 자원의 다이내믹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장애인과 그들의 지역사회에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결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전국 및 주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열정을 공유하고 정보 공유의 의지를 지닌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 휴식 지원

장애아동 간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보호자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휴식의 필요성은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를 낳는다. 휴식지원이란 근본적인 휴식을 위한 시간을 허용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퇴근하고 집에서나 또는 장애아동이 간호를 받는 집 밖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많은 수의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획된 휴식일 수도 있고 한 번의 비상 휴식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일부 서비스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보통인 장애아동들을 위한 것이고 일부는 보다 중증의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많은 휴식 프로그램은 이용에 있어 다분히 유동적이지만 자금지원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취학아동을 위한 휴식은 또한 휴일에 아동이 참가하는 캠프, 1주일 또는 2주에 한번 참가하는 레저 프로그램,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급생 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휴식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 관할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6) 건강

지난 10여 년 동안 아동기와 관련된,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그리고 자폐성 장애 등 새로운 장애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진단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 교육 담당자 및 건강 전문가들의 인식 개선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폐성 장애와 ADHD는 주요한 지적/학습장애군 특히 중증 장애의 일부이다. 5-14세의 중증 장애를 지닌 아동에서 지적/학습장애 증가의 정점은 ADHD와 자폐증이 제외되면서 훨씬 줄어들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는 중증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각각 87%와 75%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Routley, V., & de Lemos, M. M. (1993). Changing trends in school entry age in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Early Education*, 18(2), 30-38.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Australia's welfare 2007* (AIHW cat. No. AUS 93). Canberra: AIHW.

MTROK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주관 단체

Mock Trial of the Republic Of Korea

김아로(대전 관저고등학교 3학년)

1. MTROK(엠티락)이란?

MTROK(엠티락)은 'Mock Trial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약칭한 것으로, 'M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법정대회'의 개최를 개최를 주관한 단체로서 지난 2009년 말, 압구정고 한정규군(대표), 김태균군(부대표)이 평소 영어로 진행되거나 틀에 박힌 여러 모의대회에 아쉬움을 느끼어, 고등학생들이 주관하는 새로운 모의재판 대회를 기획하였다. 많은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헤치고, MTROK을 결성했고 결국 MTROK은 2010년 1월 18일부터 21일(3박 4일간)까지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법제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윌촌의 후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학생들에 의해 기획 · 주관되고 “우리 말로 진행되는 경쟁형 모의재판 대회”인 ‘M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 MTROK의 구성, 대회 운영 방식

대회 기획 초기 MTROK은 대표(본인, 당시 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부대표(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김태규), 그리고 22명의 고등학생 위원장단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대회처럼 준비 위원회, 홍보팀 등을 따로 편성하여 아주 큰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한정규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강력하고 작은 운영 조직 구성”을 운영하고 싶었던 단체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꼭 필요한 조직 구성으로 최대한 간소한 조직 시스템을 마련해서 통합과 유기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정규군의 두 번째 방침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위원장단 선발이었다.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을 통해 선발한 위원장단들이 진행한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 내려진 방침이었다.

그래서 MTROK은 사전에 위원장단 등의 선발 기준을 만든 후, 공식 후원기관에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고하여 지원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 대회 관련 후원과 지출 내용을 모두 대회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적인 면에서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다.

또한, “M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는 우리나라 최초” 고등학생 주관-한국어 경쟁형 대회 “인 점 외에도 참가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먼저, 민·형사·행정 소송법에 대한 사전 연구를 거쳐 모의법정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학생이 아무 어려움 없이 모의 법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면서도 친절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그 후, 사전 워크숍(2010. 1. 18., 서울 삼성동 COEX CONFERENCE ROOM)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대회 전 한 번 더 대회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MTROK은 법의 실질적 형평성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학생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여, 사회복지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기에 발판도 만들었다.

3. 여태까지의 엠티락

(1) 1.18~21일 MTROK

2010. 1.18(워크숍)을 시작으로, 1.19~21일까지 법제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초 한국어 경쟁형 모의법정대회가 열렸다. 모의법정세트는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MTROK은 타대회와 달리 몇몇의 특징들이 있다. 첫째, 공신력을 갖춘 대회-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법제처, 국내 변호사협회 중 가장 큰 서울지방법변호사회,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 후원을 약속받아 공신력 있는 대회이다. 둘째, 기존 대본형이 아닌 현장형 대회-많은 모의법정대회는 대본형 대회에 그치지만, MTROK은 한발 더 앞서는 대회진행 방식을

보여준다. 상황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현장진행형대회로써 보다 더 재미있고, 살아있는 법조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셋째, 영어가 아닌 한국어- 영어로 모의법정대회를 열면, 특목고나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MTROK는 우리말로 대회진행을 함으로써,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넷째, 참가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법과 법정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한 학생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획하여, 자체 제작된 상세한 대회 매뉴얼은 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참가자도 부담 없이 최고의 법정 체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3박 4일간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했고, 그 결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시설에서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다.



▲〈 M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 대회 모의법정 장면 〉

(2)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법 캠프”

MTROK 대회 이후 공식 후원기관인 법제처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어린이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초청에 또다시 소집된 MTROK은, 2010년 6월 19일 ~ 20일(1박 2일간)에 개최된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법 캠프”에서 어린이 법제관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모의재판(민사, 형사, 행정 분야)을 시연하였고,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 생활법령경시대회를 직접 진행하였다. 또 시연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 법제관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도 했다.



▲〈 법제처 법 캠프에서 모의재판 중인 MTROK 시연팀 〉

(3) 법제처 MTROK 공로상 시상식

캠프가 끝난 한 달 후(2010년 7월 16일), MTROK은 이석연 법제처장님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한 MTROK이 반 년 만에, 정부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MTROK공로상 시상식에서는 서울지방법원사회 김현 회장님께서도 시상식이 끝나고 MTROK를 격려해주셨다.

(4) 현재 MTROK는

MTROK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찾기 쉬운 법령 기자단 모집과 웹 어플리케이션 공모 등 법제처 추진 사업 홍보에도 협조하는 등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법의식 향상에 동참하고 있다.

4. MTROK 향후계획

MTROK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많은 청

소년들이 MTROK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법을 접하면서 법의 소중함을 알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MTROK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갈등과 분쟁 상황을 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체험해 보기 위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회만 된다면 활동할 계획이다.

더 철저한 기획과 준비를 통해 MTROK이 나아갈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을 계획하며, 내년 2월 초쯤 2011 MTROK 대회를 개최예정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mtro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MTROK에 대한 법제처 공로상 시상식 >

5. MTROK 한정규 대표 인터뷰

질문1 이렇게 고등학생신분으로 대회를 개최하셨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생이 주관하는 모의법정대회였던 만큼, 대회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우수한 위원장단의 선발과 논의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후원과 공인이 필요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 과정이 대회 개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 계획을 작성하고 후원 요청 사항을 정리하였는데, 후원 승인이 없으면 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기관을 설득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법제처, 최대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내 5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어려움을 극복했기에 현재의 MTROK(Mock Trial of the Republic Of Korea)이 있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법치주의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2 많은 분들이 대회 운영진에 관심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진 구성에 있어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M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의 주관단체인 MTROK을 운영하면서 대회 자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의 후원 외에 내부적으로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대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참가해 보았던 각종 모의 대회에서는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진으로 인해 대회의 완성도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MTROK은 대회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운영진을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알맞은 선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운영진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식 후원기관인 법제처에 보고하여 점검을 받기도 하면서, 능력 있는 운영진 선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정한 운영진 구성을 통한 대회 공신력 제고는 다른 학생 주최 모의대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MTROK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질문3 대회 개최로 인해 가장 큰 보람을 느꼈나요?

대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닦친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와 부모님은 물론, 후원기관에게 믿음을 주고 중요한 사항은 잘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전국에서 약 20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후원기관에서 격려사까지 해 주시는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

는 좋은 시설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대한 좋은 평가로 법제처로부터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프로그램 중 일부를 주관해 달라는 취지로 초청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법치주의 제고를 기본 모토로 삼은 저희 MITROK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을 위해 또 다시 활동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2010년 6월 19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에서 MITROK은 모의재판 시연과 생활법령 경시대회를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법 캠프 프로그램 주관을 통해 어린이법제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법제처장 공로상을 수상하였는데, 시상식에서 이석연 법제처장님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님으로부터 저희 단체에 대한 좋은 평가와 격려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4 제 2회 대회인 'MITROK 2011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를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인방향은? 'MITROK 2010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와 다른 점은?

2011년에 제 2회 대회를 개최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법치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저희 MITROK만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1회 대회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말 진행의 경쟁형 대회 체계에서 발견된 한계와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훨씬 발전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과 다르게 이공계와 예체능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 볼 생각입니다. 법적 분쟁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의법정대회가 인문계 학생들에게만 관심사가 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운영진 중 일부를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으로 채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용성 높은 계획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질문5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할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의 근원이 되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집필한 연구논문에서 준법의식의 배양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고한 준법정신을 길러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이 법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직접 찾아, 자기 주도적으로 법조인의 역할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양 계 민 (부연구위원)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세대가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잣대다. 필자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의 21.3%가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7.2%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가 저기는 것이 더 많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즉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인의 이주로 인하여 국내의 범죄가 증가하거나 한국인의 자원을 빼앗

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절반가량의 청소년들(47.7%)이 한국인은 가능한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은 대다수가 다문화사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본 적도,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과 역량개발도 중요한 부분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자녀들을 보는 주류집단의



태도일 것이다.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 태도를 나타내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역량을 높이고자 한들 견고하고 높은 차별의 벽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복지차원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다수의 일반국민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청소년을 포함하여 교사, 학부모, 학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수의 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

서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국민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과목 전체에 다문화적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다문화교육이 체화되고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주류집단의 청소년들로부터 따로 분리하여 구분해내고 그들만을 위한 각종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그들을 이질화시키고 ‘우리’ 가 아닌 ‘남’이라는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다문화관련 행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와 관련하여 '해야 할 것' 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에 대한 교사용 및 학생용 지침을 제정하고 학생용 행동가이드라인을 교실에 붙여두어 학생들이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현재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하여 매우 둔감한 상태로, 타인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비민주적인 태도인지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장차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발간물 소개

>>> NYPI 발간물 소개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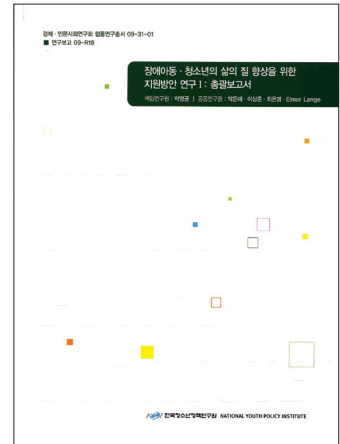
| ISBN : 978-89-7816-790-1(93330)

| ISBN : 978-89-7816-789-5(93330)(세트), 자체 보고서 번호 : 08-R18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연구목적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생애 초기는 그들의 중기 이후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기의 정책 개입은 생애 중기 이후 삶의 질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 청소년의 일상적 가족생활, 교수 · 학습 활동, 심리 · 사회 · 신체 · 정서적 발달,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 재활서비스, 의료 및 상담,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성(性) 문제의 해결, 진로지도 및 취업 등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미흡함. 장애아동 ·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장애아동 · 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장애아동 · 청소년 정책 수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장애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개선방향을 설정함. 둘째, 장애아동 · 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가족생활과, 교수 · 학습활동, 성장과 발달, 장애아동 · 청소년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참여, 장애아동 · 청소년을 위한 재활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수립함. 셋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본 연구는 2개년 동안 지속되는 협동연구과제로 계획되었으며, 협동연구의 각 연도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차년도 연구(2009)	제2차년도 연구(2010)
□ 총괄연구과제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연구과제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 세부연구과제(1/2차년도) - 장애아동 · 청소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 학습활동 지원정책 연구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심리 · 사회 · 정서 ·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장애아동 · 청소년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참여 지원방안 연구 - 장애아동 · 청소년 재활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방안 연구	□ 세부연구과제(2/2차년도)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性)문제 해결방안 연구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이동·청소년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BN : 978-89-7816-784-0, 자체 보고서 번호 : 08-R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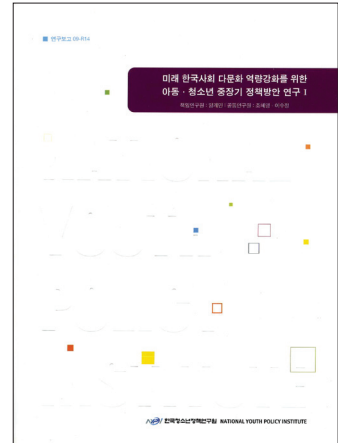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연구목적 :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적극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 모색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

주요내용 :

-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그가운데에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극복해 가고 있음.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일반가정 자녀의 성장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자부심으로 승화되기도 함.
-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대안학교나 지역의 이주민지원센터의 참여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학교의 방과후 학습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함.
- 이주 청소년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특히 이중언어 능력을 이점으로 생각함.
-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교과목 또는 숙제지도라기 보다는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성취동기 향상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주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었음.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 즉,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함.
- 교사설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시행될 기관은 학교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청소년 면담 결과 학교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등의 학교 밖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I 단행본

No.1 서 명: 학교밖에서 배우기

저 자: 배은주

출판사: 원미사

출판년: 2010

『학교 밖에서 배우기』는 학교 W'안W' 교육과 학교 W'밖W' 교육을 대비시키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 모델을 제시한다. 학교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안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풀기 위한 대안교육을 소개한다.

No.2 서 명: 이제 새롭게 시작해봐

저 자: 주석진

출판사: 이담복스

출판년: 2010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봐』.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그늘에 놓여 있다. 저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바르고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메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내용은 크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인터넷에 관련된 심리적 문제, 인터넷에 관련된 생활적 문제, 미래에 대한 준비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No.3 서 명: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저 자: 김민아

출판사: 끌레마

출판년: 2010

우리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청소년 인권 교과서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지난 7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며 수많은 청소년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수업을 진행해온 저자가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한 것들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할 청소년 인권의 의미 등을 소개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고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No.4 서 명: 경제백서 2009

출판사: 기획재정부

출판년: 2010

No. 5 서 명 : 14살 중딩 미국을 향해 날다

저 자 : 박혜수

출판사 : 혜지원

출판년 : 2010

『14살 중딩 미국을 향해 날다』는 꿈 많은 14살 중딩 혜수의 미국 교환학생 성공기다. 혜수가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생생한 경험들을 사진과 함께 재미있게 들려준다. 미국에서 각 국의 학생들에게 국비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자극을 주며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꼭 알아야 할 상식 18가지를 챕터 중간마다 수록했다.

No. 6 서 명 : 성공을 꿈꾸는 10대들의 닭고기 수프

저 자 :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데보라 레버

출판사 : 꿈과희망

출판년 : 2010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공동 저자인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그리고 데보라 레버가 10대들의 영혼을 위한 『10대들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 중 '도전편'에 해당한다. 이 책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내야 하는 청소년들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을 실화를 통해 드러내고,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마음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살피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10대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10대들에게 가장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No. 7 서 명 : 청소년복지론

저 자 : 노혁

출판사 : 교육과학사

출판년 : 2010

『청소년 복지론』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학교재이다. 이 책은 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다음, 청소년복지의 실천방법,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제, 청소년의 미래,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No. 8 서 명 : ADHD 아동 :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자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출판사 : 이너북스

출판년 : 2010

이 책은 ADHD 아동의 행동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ADHD 아동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놀이와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바라보던 부정적이고 모호한 시각을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No. 9 서 명 : 이혼가정의 아동 :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자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출판사 : 이너북스

출판년 : 2010

이 책은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과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놀이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No. 10 서 명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저 자 : 권순희, 박상준, 이경한, 정윤경, 천호성

출판사 : 교육과학사

출판년 : 2010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주교육대학교가 설립한 「전북다문화교육센터 연구총서」 제1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책인 다문화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문화정책을 살펴본 다음, 한국과 가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을 들여다본다. 특히 교사와 예비 교사가 다문화교육에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건네고 있다.

No. 11 서 명 : 청소년문제론

저 자 : 홍봉선

출판사 : 공동체

출판년 : 2010

위기청소년의 이해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문제론』.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2009년 말에 발간된 '위기청소년의 이해와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모태로 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다루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총 5파트 11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개인적 위기, 가족위기, 교육적 위기, 사회적 위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No. 12 서 명 : 교육사회학

저 자 : 성낙돈, 안병환, 가영희, 노재화

출판사 : 등문사

출판년 : 2010

덕성여자대학교 교직과 교수 성낙돈 등이 공저한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저술했다. 교육사회학에서 활용되는 개념과 관점을 소개하면서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이론과 지식을 담고 있다. 교육사회학의 연구 특성에 대해서도 다룬다.

No. 13 서 명: 범죄학

저 자: 이윤호

출판사: 박영사

출판년: 2010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호의 『범죄학』. 범죄유형론과 범죄피해자론에 관한 개론적 개념부터 이론적 경향까지 다루는 범죄학 교재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범죄학에 접근하고 있다. 형사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평이하게 설명한다.

No. 14 서 명: 한국의 교사와 교수 바로알기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출판년: 2010

'한국의 교사와 교수 바로알기'는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시리즈'의 두번째 발간물로서 한국의 교사와 교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최신의 정확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하였고, 학교장이나 교육전문직에 관한 실태와 현황 정보도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특성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국공립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에 대한 지역 특성 분석, 고등교육 교원의 현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원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준비하였다.

No. 15 서 명: 통계로 본 학교 이야기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출판년: 2010

'통계로 본 학교 이야기'는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시리즈' 발간물로서 한국의 학교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였고, 주요 선진국의 교육체제를 소개하여 세계 속의 우리 교육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No. 16 서 명: 탐욕의 시대

저 자: 장 지글러

출판사: 갈라파고스

출판년: 2010

8년간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한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의 '신흥 봉건제후들'이라 불리는 거대 다국적 민간 기업을 비롯해 IMF, IBRD, WTO 등 시장원리주의와 세계화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을 통렬하게 고발한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형식을 빌려 기아의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책이라면, <탐욕의 시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아라는 현상의 역사적인 배경과 저변을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No.1 서명: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출판사: Springer

출판년: v.39, n.10(OCTOBER 2010)

When Biased Language Use is Associated With Bullying and Dominance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Prejudice/Sexuality Related Social Support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Relationship Trajector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Sexual Minority Youth/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bout Sex: A Representative Statewide Analysis/School Climate for Transgender Youth: A Mixed Method Investigation of Student Experiences and School Responses/Sexual Orientation, Parental Support, and Health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Acculturation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in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Early Adolescent Sexual Initiation and Physical/Psychological Symptom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Nation/Assessing Caus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Risky Sexual Online Behavior and Their Perceptions of this Behavior/Older Romantic Partner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No.2 서명: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출판사: SAGE PERIODICALS INC

출판년: v.30, n.5(OCTOBER 2010)

Rural Community Characteristics, Economic Hardship, and Peer and Parental Influences in Early Adolescent Alcohol Use/Filial Pie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Hong Kong Chinese Early Adolescents/Youth Development in After-School Leisure Activities/A Case-Control Study of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Refusal in Children and Adolescents/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of Change in Maternal Knowledge Over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Autonomy in After-School Activity Choice Among Preadolescents From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No.3 서명: Youth & Society

출판사: Sagepub

출판년: v.42, n.1(9/2010)

Latino and Asian Student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Their Educators: The Role of Generational Status and Language Proficiency/Preadolescent Violence Among Girls/Frameworks of Caring and Helping in Adolescence: Are Empathy,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Related Constructs?/Democracy's Orphans: Rights, Responsibility,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Lives of Incarcerated Youth/Defying Normative Male Identities: The Transgressive Possibilities of Jewish Boyhood/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Among Jewish and Arab Youth in Israel

No. 4 서 명 :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출판사 : WILEY BLACKWELL

출판년 : v.20, n.3(2010)

The Role of Socialization, Effortful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French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Addressing Three Common Issues in Research on Youth Activities: An Integrative Approach for Operationalizing and Analyzing Involvement/Adolescents and Music Media: Toward and Involvement-Mediation Model of Consumption and Self-Concept/In-School Versus Out-of-School Friend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Adolescents/Developmental Precursors of Number of Sexual Partners From Ages 16 to 22/Assessing Adolescents' Attachment Hierarchies: Differences Across Developmental Periods and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daptation/Predicting Developmental Change in Healthy Eating and Regular Exercise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Protection and Risk/Temporal Relations Among Depressive Symptoms, Risky, Behavior Engagement, Perceived Control, and Gender in a Sample of Adolescents/Developmental Patterns of Social Trust Between Early and Late Adolescents: Age and School Climate Effects/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frican American and Caribbean Black Adolescents' Attributions Regarding Discrimination/Natural Mentoring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Mothers: A Study of Resilience

No. 5 서 명 :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출판사 : ELSEVIER

출판년 : v.32, n.9(9/2010)

Meeting the basic needs of children: Does income matter?/Meeting children's basic health needs: From patchwork to tapestry/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How adequately are food needs of children in low-income households being met?/ Early education: Progress and promise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Meeting the basic educational needs of children and youth

No. 6 서 명 :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

출판사 :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所編

출판년 : v.36, n.2(SUMMER 2010)

ソーシャルワークにおける演習教育の課題/ソーシャルワーカー養成と演習教育/演習教育における教材活用と開発: ケース・メソッドに依據して教材を考える/ソーシャルワークにおける演習教育/実践現場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ク演習: 実践コミュニティによる學習の方向性/知的障害のある人の地域生活地援の實踐をソーシャルワーク實踐にするために/地域を基盤としたソーシャルワークの具本的展開: 地域福祉活性化事業にみる個と地域の一体的支援/Social Work (NASW)/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NYPI NEWS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 8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천안상록리조트서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을 주관했다. 이 워크숍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업식·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50개 운영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본원 이명숙 원장(사진)이 인사말을,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차관(사진)이 격려사를 했다. 또한 미래교육연구소 황석연 소장이 '졸업시즌과 생애설계교육'을, 미래행복인재연구소 김봉규 소장이 '인성, 창의성 교육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정승관 교장과 천안동성중학교 유재흥 교감이 졸업식 사례를 생동감있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만들기 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 9월 8일(수) 양재역 근처 엘타워 엘가든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만들기 세미나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명숙 원장은 취약아동·청소년 토털케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건설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의무 법제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털케어 공간 확대 등을 취약 아동·청소년 토털케어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기관,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이번 호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장애아동 등 우리사회의 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조사결과, 전체 10,253명 중 1,193명(11.6%)이 1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간섭과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출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가죽지지가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해요"



청소년 8% "1회 이상 가출 경험"

청소년 10명 중 4명 "가출 충동"

가출의 주된 이유 "부모님이 싫어서"

가출경험 청소년 "자존감 낮고 우울, 불안 높아"

*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수행한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연구결과임 (문의처 : 02-2188-8818, hbaek@nyp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82-2-2188-8860/8800 Fax.82-2-2188-8869

www.nypi.re.kr